

## 유한재단, 北 출신 장학생에 2억여원 장학금

유한재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대강당에서 '2019년도 북한 출생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70명의 학생들에게 1년분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출생 장학생은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추천선발된 70명의 대학생들이다. 총 금액은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행사에는 유한재단 한승수 이사장(사진), 유한양행 연만희 고문 등 유한 관계자와 남북하나재단 관계자, 장학금 수혜자들이 참석했다.

한승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



한 박사님께서 평생을 일궈오신 삶의 철학이 이 장학금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유박사님의 뜻을 받들어 본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주시기 바란다"며 "항상 유한재단 장학생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며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의 각오를 더욱더 다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한화갤러리아, '희망트레이너' 사회공헌 프로젝트 성료**  
한화갤러리아 사회공헌 활동 '희망트레이너' 참여 아동 90여명이 지난달 30일 천안에 위치한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에 모여 아동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문제점 개선 결과를 공유했다. /한화갤러리아



**동아쏘시오그룹, '창립 87주년' 기념식 가져**  
동아쏘시오그룹은 1일 창립 87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용두동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



**신세계푸드,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진행**  
지난달 30일 신세계푸드가 다문화 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재능나눔 요리교실'을 개최했다. /신세계푸드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김장김치 나눔행사 실시**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이 김장철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위해 김장김치와 유기농 쌀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풀무원

## 공사도급계약 해지 위한 총회 의사정족수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A조합은 시공자 선정 총회를 통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총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할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제1항). 도시정비법상 가장 엄격한 의사정족수이다. 서면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직접 참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 등이 서면결의서를 미리 매수하여 총회에 제출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막대한 로비자금이 지출되었으며 총회의 결이 무력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로비자금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1.자 2014카합10149 결정).

그렇다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기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할까?

구 시공자 선정기준 하에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를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본 경우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가합25151 판결 등). 그렇게 보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후 문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자에 '서면결의서 제출자'와 '직접 참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명시적

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는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명백한 명문의 규정도 없이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10149결정도,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시에도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계약 해지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고 위와 같이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나 시공자 선정 철회를 위한 총회에도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 삼성물산패션부문, 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동반성장데이' 행사 성료

삼성물산패션부문은 지난달 29일 강남구 도곡동 사옥에서 협력업체 대표 102명을 초청해 '2019년 동반성장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패션부문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은 씨에프씨 주식회사 김동민 대표, 한백월드 한양수 대표 등 총 102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으며, 박철규 삼성물산 패션부문 부문장과 패션부문의 주요 브랜드 사업부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주요 협력사 및 동반협약사와 함께, 새롭게 신설한 삼성물산패션부문의 상생협력프로그램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나눴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반성장데이 행사는 삼성물산패션부문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대해 상호 신뢰 및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삼성물산패션부문이 지난달 29일 102개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동반성장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패션부문

특히 우수협력사에 대한 시상금을 확대하고, 장학금과 복리후생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삼성물산패션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날 박철규 삼성물산패션부문 부문장은 "최근 패션업계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삼성물산패션부문은 우수 협력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문화를 패션업계에 정착시키는 한편, 협력사와 WIN-WIN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를 체질화하고,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최현규 송학장갑 대표 중소사랑나눔재단에 성금

충남 보령에 있는 송학장갑 최현규 대표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1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기부될레이에 동참한 송학장갑은 전 직원의 98%를 보령시민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작업용 코팅장갑 제조·도매 업계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반도 체디스플레이과장 강감찬

◆한국연구재단 ◇ 승진 △ 원천사업실장 김현철 △ 거대사업실장 박희웅 △ 국제협력기반실장 황덕수 ◇ 전보 △ 인재양성실장 최태진 △ 산학협력실장 한상덕

◆파이낸셜뉴스 ◇ 승진 △ 국장 편집국 정책사회부 경인지역 취재본부장 강근주

## 부음

▲강신경씨 별세, 강성애·강성락(신안산대 총

장)·강성화·강성인·강성종(신한대 총장·전 국회의원)·강성은·강성현씨 부친상=30일 오전 6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70-7816-0229.

▲방춘례씨 별세, 이명재(KJtimes 전무이사)씨 모친상=1일 오전 5시 55분, 봉담장례문화원 3층, 발인 3일 오전 11시, 031-278-0404.

▲은영자씨 별세, 김창수씨 부인상, 김상우(이디야커피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모친상, 정다운(서울 보라매병원 치과 교수)씨 시모상=11월30일 오후 10시2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용인추모원, 02-2258-5940.